

광주시, 평동산단 노동자도 '반값아침' 챙긴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산업단지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인 '간편한 아침 한 끼'가 하남·침단산단에 이어 평동산단에 3호점 문을 열었다. 특히 오는 7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이 사업 또한 광주·전남 전체 산업단지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시는 25일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간편한 아침 한 끼' 3호점 개소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바쁜 출근 시간에도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간편한 아침 한 끼' 사업은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과 연계됐으며, 2026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평동산단 3호점은 2023년 하남산단 1호점, 2024년 침단산단 2호점에 이은 조성된 세 번째 거점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요 산업단지 전반으로 조식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확대됐다.

평동점은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주요 메뉴는 ▲김밥 1000원 ▲샌드위치 및 샐러드 3000원 등으로,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고 균형 잡힌 식사



하남·침단 이어 평동산단에 '간편한 아침 한 끼' 3호점 개소

1000원 김밥·3000원 샌드위치 제공... 노동자 건강·활력 확보

전국 첫 시행 2년만에 이용객 3.6배 증가... 노동복지 모델로

를 제공한다.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에는 이날 평동점 개소를 축하하며 5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 사업 취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는 산단 노동

자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쌀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23년 1만 9000여식 제공에서 2년 만인 2025년 6만 9000여식으로 이용객이 약 3.6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약 7만명에 달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

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평동 3호점 개소는 광주가 시작한 '노동존중'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광주와 전남이 통합 특별시로 출범하면 이 같은 제갈형 노동복지 모델이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재개발구역 빈집·골목길 합동 안전점검 실시

계림1·3·산수2·3·지산1구역 대상,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광주 동구는 재개발구역 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계림1·3구역, 산수2·3구역, 지산1구역 일대 방치된 빈집과 어두운 골목길을 중심으로 합동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와 야간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주거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에는 동구청을 비롯해 자율방범대, 경찰서, 자치위원회 및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재개발구역 내 빈집 현황 조사 및 관리 실태 점검 ▲CCTV·보안등 등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작동 여부 점검 및 개선 필요 사항 발굴 ▲어두운 골목길 순찰 강화 및 위험 요인 현장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동구는 재개발구역 내 실제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부터 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관내 재개발 지역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현장 중심의 관리 활동을 이어가며, 재개발조합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은 공사와 이주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이라며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주민·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북구, 길어지는 중동발 경제 위기 관리 나선다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기반 지원 방안 마련 노력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따른 국제 경제위기 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보호에 나선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응 TF' 운영에 총력을 다한다.

이번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중소기업지원과, 위생과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중동 사태 종료 시까지이며 ▲민생 물가 안정 ▲석유 가격 안정 ▲수출입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선다.

먼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상황 호전 시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27개 동 전체로 확대해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수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화폐 '부끄머니'의 지속적 사용을 독려해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현장점검을 수시로 병행해 급등한 유가에 따른 가격 담합이나 불법 유통 행위에 대응한다.

수출입 지원 분야에서는 중동 수출기업의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피해 내역을 접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인 부구청장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와 지역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도심 속 한옥에서 봄의 정취와 전통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서구는 4월 한 달간 서창한옥문화관에서 '봄의 한옥, 전통을 만나다'를 주제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재 전수자와 함께하는 전통 음식 체험과 한옥 피크닉, 전통공예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4일에는 전통 장을 직접 담가보는 '할머니 레시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 이

서구, 봄의 한옥에서 전통문화 즐긴다

장 담그기·피크닉 등 도심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수가가 참여해 전통 식문화의 가치와 함께 우리 고유의 맛과 지혜를 전한다.

11일과 25일에는 서창동의 문화·생태 자원을 연계한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마을 이음, 사계 여정-봄'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만귀정과 나눔누리정원 등 서창동 일대 명소를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고 봄꽃 피크닉과 버스킹 공연, 체험 프로그램

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11일과 18일 다육이 심기와 나무구슬 팔찌 만들기 등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주말한옥공방', 14일 팽메들 팔찌 만들기과 복조리 다육이 심기 등을 체험하는 전통문화교실 '소문난 학당', 18일 화전 만들기과 꽃차 체험 등을 진행하는 세시풍속 체험 '봄: 화전놀이' 등을 운영해

/박석우 기자

전통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서창한옥문화관에 방문하거나 전화(062-373-4365)를 통해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재료비 등 일부 참가비가 있다.

허성자 체육관광과장은 "서창한옥문화관을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 관광을 잇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봄기운 가득한 서창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김병내 남구청장은 남구 진월동,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 선운지구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각각 신고했다.

전남에서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경우 여수 학동 아파트를 전세냈고,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 왕지동에 본인 명의로 공시가 7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부부 명의로 서

울 서초구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나주에서는 전세아파트를 이용중이다.

정인호 광양시장은 본인 명의로 광주에 대형 아파트를, 광양에 30평대 전세아파트를 각각 신고했고, 정철원 담양군수는 광주와 담양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 김순호·화순 구복규·장성 김한중·완도 신우철·곡성 조상래·보성 김철우·함평 이상익·진도 김희수 군수는 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과 고흥 아파트를, 김성장흥군수는 본인 명의 서울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장흥 아파트를 나란히 신고했고, 강진원 강진군수는 광주에 본인 명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로 광주와 강진 전세아파트를 등록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경기도 부천에 부

부 공동 명의로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영암에선 30평대 아파트를 임차한 것으로 신고했고, 김산 무안군수는 본인 소유의 무안 상가주택과 배우자 명의로 된 30평대 광주 아파트를 신고했다.

70억원대 재력가인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에 본인 명의로 상가주택 4건을 신고했고,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단독과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전광훈 기자

주최 |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광안문화관광재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2026 26경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항해